

# 광주시의회 예산 삭감 여파 '몸살'

## 공무원-구의원-주민들 대거 예결위 방문 증액 요구

광주시의회 상임위가 내년도 광주시 예산을 대폭 삭감하자 시의회 청사가 예산증액을 요구하는 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해당 실·국 공무원을 비롯한 남구 구의원, 노인을 포함한 주민들이 6일 광주시의회를 대거 방문해 "예산 삭감이 지나치다"고 증액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이날 하루 예결위 의원사무실과 청사 로비에는 예산 관련 민원인들로 북적거렸다.

광주 남구 구의원과 주민 등 50여

명은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를 방문해 남구 지역구 출신 예결위원인 나종현·서정성 의원실을 찾아 "상임위에서 삭감된 ▲남구 다목적체육관 건립 47억원 ▲남구청사 고하율 낭비방지사업 22억5000만원 ▲남구청사 LED 조명보급 사업 7억 5000만원 등 남구 소관 사업 예산이 80억원에 달한 것은 지나친 삭감"이라며 예결위에서 증액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남구 22만 주민 대표 일동'의

성명서를 통해 "남구 예산 전액을 당장 복원하라"며 "삭감된 남구 관련 사업 예산이 예결위에서 복원되지 않을 경우 심리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남구에 지역구를 둔 일부 시의원이 예산을 삭감하도록 충동과 동조를 하고, 예산 삭감을 주도하고 방관했다는 소문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종현 의원은 "명분에 맞지 않는 예산 편성을 잘못됐다고 지적할 수밖

에 없다"며 "그러나 예결위 계수조정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의 증액 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각 실·국 간부와 공무원들의 움직임도 바빴다. 예결위원 방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예산 증액을 요청하고,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예산 복원을 응소하기도 했다.

앞서 빛고을노인복지재단 차지위원회 소속 노인 20여명은 지난 5일 환경복지위원회가 빛고을, 효령 노인건강타운 운영위탁비 8억원을 삭감한 데 대한 항의 표시로 예결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해 예결위가 과행을 겪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1조)에 의해 유찰됐다"며 "10일간의 재공고 기간을 거쳐 차량공급자를 선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오는 19일 마감되는 3차 입찰에서 도 1개 업체만 응찰하면 같은 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 만약 차량 계약이 늦어질 경우 호남고속철도 개통에 차질이 우려된다.

하지만, 공단 측은 수의계약이 이뤄지더라도 차량 설계, 제작 및 시운전 단계별로 철저한 품질 관리와 성능 검증을 거쳐 호남고속철도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1차 호남고속철도 차량 국제경쟁입찰에서도 국내 철도차량업체인 현대로템 1개 업체만 응찰, 자동 유찰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시의회 "복지예산은 늘려 주오"

### 수년째 동결 저소득층 지원금 21억 증액 추진

광주시의회 각 상임위가 내년도 광주시 예산을 대폭 삭감했지만 환경복지위원회(환경복지)는 21억 원의 복지예산 증액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 요청했다.

물가는 치솟는데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금은 최근 4~7년간 동결됐다는 지적(광주일보 1일자 1면)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 지원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6일 환경복위가 예결위에 증액을 요구

청한 사업과 사업비는 ▲결식아동급식 단가 15억3100만원 ▲경로당 무료급식비 2억9000만원 ▲거동불편 노인 식사 배달비 4500만원 ▲청소년 시설 복합 공간화 프로그램 지원 1억 원 ▲여성친화도시지정 차지구 특화 7000만원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체험 프로그램 8000만원 ▲보육교사 역량 증진 프로그램 2000만원 등 6건에 21억3600만원이다.

예산이 증액될 경우 지난 2005년부

터 하루 1끼 3000원으로 제자리꼴을 걸었던 아동급식 단가는 내년부터 4000원으로 인상되며, 지난 2006년부터 동결돼왔던 경로당 급식비와 거동불편 식사 배달 지원비도 하루 한끼 각 2000원에서 2300원으로 인상된다.

광주시의회 문상필 환복위원회는 "아동급식비와 경로당 급식비 등은 광주시가 내년에 인상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지만, 대부분의 예산이 부족분이 많아 증액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전남도립대 장학금 삭감...도의회 맹비난

### 도립대 "신규사업 때문...피해 없도록 대책 마련"

전남도립대학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예산을 삭감해 편성, 등록금 부담을 겪고 있는 지역 대학생들을 배려하지 않은 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6일 행정환경위원회를 열고 전남도립대학이 올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대학측이 장학금 지급 규모를 올해 보다 삭감한 18.8% 삭감한 이유를

따졌다. 도립대학은 올해 장학금 33억6000만원에서 내년에는 27억3000만원으로 줄었다.

허강숙(민주·순천5) 의원은 "서울시와 강원도 등 일부 시·도립대학은 등록금을 낮추는 상황에서 도립대학이 장학금을 깎은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다른 의원들도 이번 도립대학의 장

학금 삭감안은 "도립대학이 전체 예산규모를 2.4% 늘린 상황에서 장학금을 줄인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지역인재육성이라는 도립대학의 설립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도립대학 관계자는 "차세대 학생 행정시스템 등 필수 신규사업으로 인해 일부 예산이 삭감됐다"면서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해명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 전남인구 191만3천명

#### 3개월째 증가 이례적

전남 인구가 지난 9월부터 3개월 연속 증가했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1월 말 전남 인구는 191만 3002명으로, 10월 191만2509명, 9월 191만 2151명 등으로 3개월 연속 늘어났다.

매년 인구 감소세가 가파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인구가 3개월 연속 늘어난 것은 지난 히 이례적으로 광양지역 인구 증가가 한몫을 했다. 광양의 경우 지난 9월 14만7723명, 10월 14만9605명, 11월 15만410 등으로 3개월 동안 2678명이 늘어났다.

전남도내 인구는 최근 20년간 해마다 적게는 1만 명에서 많게는 6만 명씩 줄었지만 2009년을 기점으로 감소 폭이 연간 6000명 이하로 둔화됐고 올해는 5000명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전남도는 내다보고 있다.

전남도내 적극적인 기업유치와 교육환경 개선 등으로 정주 여건이 개선된 것이 주 요인으로 분석됐다. 일각에서는 인구증가가 일시적인 현상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인구 증가로 전환했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도는 6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박준영 도지사와 안병호 함평군수, 한주석 동합평산업단지개발(주) 등 4개 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763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 호남고속철 차량입찰 또 유찰...개통 차질빛나

호남고속철도 차량입찰이 또 다시 유찰됐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호남고속철도 차량을 2014년 말까지 도입하기 위한 국제경쟁입찰을 지난달 23일 재공고해 마감한 결과, 다시 현대로템 1개 업체만 응찰해 유찰됐다고 6일 밝혔다.

철도공단은 "이번 2차 입찰에서도 1개 업체만 응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1조)에 의해 유찰됐다"며 "10일간의 재공고 기간을 거쳐 차량공급자를 선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오는 19일 마감되는 3차 입찰에서 도 1개 업체만 응찰하면 같은 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 만약 차량 계약이 늦어질 경우 호남고속철도 개통에 차질이 우려된다.

하지만, 공단 측은 수의계약이 이뤄지더라도 차량 설계, 제작 및 시운전 단계별로 철저한 품질 관리와 성능 검증을 거쳐 호남고속철도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1차 호남고속철도 차량 국제경쟁입찰에서도 국내 철도차량업체인 현대로템 1개 업체만 응찰, 자동 유찰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남도는 6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박준영 도지사와 안병호 함평군수, 한주석 동합평산업단지개발(주) 등 4개 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763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전남도 제공)

## 전남도 4개기업 763억 투자협약

전남도는 6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유치업종은 원료가공, 식료품, 전기장비 제조, 부품산업 등이며 산단부지가 서해안고속도로, 광주·부안간 고속도로 등과 가까워 전남 중서부 지역 산업입지 수요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동합평산업단지개발(주)은 함평군 대동·학교면 일원에 74만2000㎡ 규모의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죽온스틸은 광양시 성황동에 83억 원을 들여 철강 및 비철금속 처리시설을 세운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 뉴스 브리핑

#### 소형 이륜차 보험가입 의무화

내년부터 스쿠터 등 배기량 50cc 미만의 소형 이륜차 보험가입과 사용신고가 의무화된다.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이륜차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배기량 50cc 미만의 소형 이륜차에 대한 사용신고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 노인 학대신고 조사 거부땐 과태료

앞으로 노인 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현장 조사를 거부하면 100만원부터 많게는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이 같은 기준을 담은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사용 전면제한

내년 1월부터 모든 어린이용품에 납, 카드뮴 등의 유해물질 사용이 전면 제한된다.

지식경제부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 적용되는 모든 어린이용품에 대해 내년 1월부터 납, 카드뮴, 니켈, 유해 자석 등의 사용을 제한한다고 6일 밝혔다.

#### 범죄수익 환수 기여자에 포상금 지급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고 범죄수익 등이 몰수·추징과 귀속된 경우 신고자나 몰수·추징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 신병으로 고통을 받고 계십니까

내가 아닌 다른 존재에 의해 시달리는 분(병의·신병)

- 우울증 / 불안 / 대인 공포증
- 환청이 들리시는 분
- 불면증 / 학습증진
- 기억력 회복 / 주변이 심하신 분
-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신 분

위생을 끊으니  
복사한 내용이 가능합니다!

무등산 길상사 주지 법공

문의 062-228-6606, 010-3747-6606

## 공무원 대 출

무방문 · 무담보 · 무보증 · 무조회/기록

- 대상 - 공무원, 군공무원, 교직원
- 금액 - 3백만 ~ 4천만 (추가대출 가능)
- 금리 - 연 5%~7% (천만원 월이자 5만원 미만)
- 기간 - 1년~10년 (최장기간까지 연장 가능, 본인선택)
- 시금융이용자 제1금융권으로 전환가능 (과다대출 포함)

APT  
담보대출  
한도 : KB시세-80%+α  
(60%)  
금리 : 연 3.93%

★ 개인신용도에 따라 금리 및 대출비율은 변동 될 수 있음★

한국금융 대표 1544-5248 | 담당 010-7112-3135

## 경매 투자

- ◆ 경매 배우면서 일하실 분
- ◆ 20년 경매비법 노하우 전수
- ◆ 유치권등 특수물건만 전문 투자
- ◆ 공동으로 경매에 투자 하실 분

|주| 오천경매  
투자 연구소  
OC & A Investment Institute

H.P 011 605 5000 TEL. 062 525 5000  
광주광역시 동구 수기동 23-2번지  
E-mail : csg5000@hanmail.net

## 공무원 특별자금

무조회 기록서비스 | 개인정보처리방침

- ◆ 대출대상 | 공무원, 교직원, 사립교직원, 군공무원
- ◆ 대출금액 | 2백만~5천만원(무보증/무담보/무조회)
- ◆ 대출금리 | 연 6%정도(천만원당 월이자 5만원선)
- ◆ 대출기간 | 1년 ~10년(본인 선택 연장 가능)
- ◆ 과다대출 | 연체(등급미달)자도 해당